

극작가 동인 관호

공동극작 아카이빙

수영전,

반드시 샤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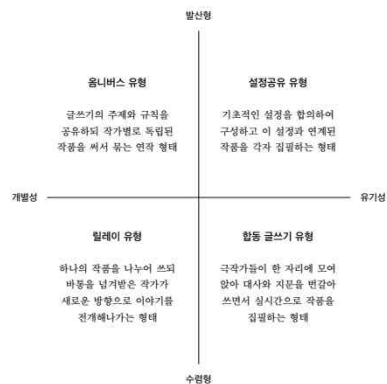
하고 들어오세요

과정기록집

Intro

극작가 동인 팔호는 2019년 창단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공동극작**을 시도하고 있다. 팔호의 첫 공연 <팔호는 팔호와 팔호 사이 팔호가 될 수 있을까>(2020)는 네 명의 극작가가 글쓰기의 규칙을 공유하는 가운데 각기 자신의 스타일대로 단막극을 써서 병렬적으로 연결하는 옴니버스 형식을 띠었다. 희곡 메일링 서비스 《계간 팔호》(2020~2021)에서는 한 극작가가 다른 극작가의 희곡을 이어받아 쓰는 릴레이 형식의 공동극작에 도전했고, 2022년 우란문화재단 입주 프로그램 에서는 네 명의 극작가가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자원(인물, 공간, 사건, 세계관 등)을 마련한 뒤에 각기 다른 시각으로 희곡을 쓰는 설정공유 형식의 공동극작을 실험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듬해 상연된 <다른 부영>(2023)은 극작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한편의 희곡을 공동으로 써나가는 합동 글쓰기 형식을 통해 완성된 작품이었다.

2024년 <수영 전, 반드시 샤워를 하고 들어오세요>(이하 <수영 전>)를 준비하는 과정은 네 가지 유형의 공동극작을 거쳐온 팔호가 ‘그럼에도, 왜 공동극작을 하는가?’를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서로 다른 극작가들이 함께 모여서 쓴다는 행위가 홀로 극작을 하는 행위에 비해 어떤 창발성을 지니는지, 그러한 이점을 보존하고 리스크를 보완하는 가장 이상적인 협업의 형태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송파문화재단 문



『함께-쓰기-지도』(2022)에 수록된
공동극작의 4가지 유형

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을 받아 과정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괄호는 기존의 글쓰기 유형이 노출했던 문제점과 보완책을 끊임없이 저울질하며 특정한 공간, 인물, 사건이 결합된 초고를 완성했고, 8월 17일 내부낭독회를 통해 〈수영 전〉을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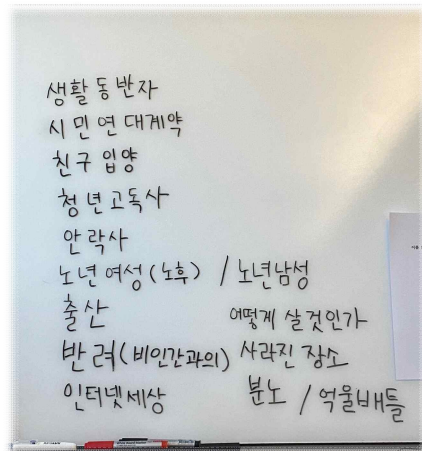
이 아카이빙 자료집은 낭독회에 이르기까지 괄호가 나누었던 고민과 낭독회 이후에 남겨진 과제를 기록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는 〈수영 전〉이라는 작품이 실제로 구상되었던 과정에 따라 자료집을 **Subject, Space, Characters, Plot, Staging** 다섯 개의 파트로 나누어 기록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어떤 문제적인 인물을 등장시키고 싶은지, 그들이 조우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인지, 그 공간에서 모두가 어떤 일에 휘말리게 되는지, 이 희곡이 배우의 육성을 입어 입체로 일어섰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를 각각의 파트에 나누어 담았다.

물론 〈수영 전〉은 각각의 요소들이 순차적으로 결정되는 선형적인 과정을 통해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전 단계로 돌아가거나 중첩된 단계들을 통과하게 되었고, 공동극작의 방향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논의하게 되는 날도 적지 않았다. 우리가 정신없이 갈림길 사이를 헤매고 다녔던 이 갈팡질팡의 기록이 아주 더디게나마 길을 찾는 원리를 체득해가는 과정으로 읽히기를 바라며 이 자료집을 엮어 낸다.

Subject

2024년 4월. 공동극작 실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팔호의 구성원들은 모두가 함께 장기적으로 천착할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남영동 시안재에 모여 각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키워드를 꺼내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전체적으로 삶의 양식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청년 고독사, 출산, 노후, 안락사 등등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가 나오기도 했고 생활동반자법, 시민연대계약, 비인간 반려, 친구 입양 등등 공동체를 꾸리기 위한 시도들과 관련된 키워드가 나오기도 했다.

화이트보드를 각자가 지닌 키워드로 가득 채우고 보니, 한국 사회는 마치 혼자 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처럼 보였다.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서로가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 젠더, 세대, 계급을 막론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로지르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식으로든 막혀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로 웃음을 스칠 수밖에 없는 비좁은 땅덩어리에 모여 살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



<수영 전> 주제 선정 브레인스토밍

우리의 논의는 자연스럽게 **고립**과 **혐오**라는 주제로 향했다. 왜 이렇게 우리는 혼자일까. 무엇이 그 모든 각자들을 억울하게 만들까. 2023년 <다른 부영>을 함께 쓸 때 우리는 한 여성이 일생에 걸쳐 느끼는 수치심과 자기혐오라는 주제에 천착한

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시야를 조금 확장하여, 서로 다른 위치성에 놓인 사람들 사이에서 다층적으로 오가는 시선과 감정의 문제를 다루어보고 싶었다. [공간]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우리가 그런 불편한 마주침이 발생하는 장소로 떠올린 곳은 구립레포츠헤터 수영장이었다. 이처럼 프로덕션의 첫 단계는 주제와 공간을 매칭하고 그에 걸맞은 공동극작의 형태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소연 이번에는 각자의 스타일이 드러나는 걸 하기로 했었는데, 오히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공통의 것이 기반이 확실하게 됐을 때 다른 색깔들이 재밌게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진희 저도 지난번에 민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장소만으로 엮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 거 같아요. 지금은 옴니버스 같아서, <괄호와 괄호 사이 괄호가 될 수 있을까>랑 다를 게 없는 거 같기도. 이 장소 자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거나, 공통의 인물을 모두가 만나거나 그런 식으로 하나의 설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민조 어떤 방식으로 쓰면 좋을까 고민이 되네요. 말씀해주신 것들이 전부 공감이가 되고, 각각의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네 편의 옴니버스로 각자의 자기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연결성을 만들어보아야 짜치는 부분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초에 작법에 대해서 접근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해요. 의도치 않게 서로 얽히게 만들기는 좋은 좋은데. 이 얽히는 이야기들을 그냥 각자 써가지고 될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흥미로운 것은 모두가 **함께이지만 따로 존재**한다는 것은 공동극작이라는 형식 자체와 닮은 점이 있다는 것이다. 공동극작은 각자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공통적인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대립하는 두 개의 과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을 둘러싸고 우리도 종종 충돌을 일으키거나 회의감에 휩싸이곤 했다. 기실 '왜 이렇게

우리는 혼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멀리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동극작이라는 이 불편한 형식이 오히려 우리가 다루고 싶은 주제를 담아내는 좋은 그릇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서로가 다르다는 것,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공통적인 자원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까. 5월 26일에는 이런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민조 『방법으로서의 경계』라는 책에서 봤는데, “경계의 생산성”이라는 개념이 있대요. 주체가 경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경계가 주체를 만든다. 라는 개념인데요. 우리들 사이를 뺏어나가며 가르고 선들의 다양한 모양이 결국 우리를 만든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차용해서 “혐오의 생산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타인에게 향하던 혐오의 시선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되돌아왔을 때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자격없음’이라는 상태가 됐을 때,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볼 수밖에 없게 될 때.

초기의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쳐 〈수영 전〉 프로젝트는 경계, 고립, 혐오라는 대주제를 출발점으로 삼게 되었다. 우리는 움니버스라는 고립적인 글쓰기 형태를 택하기보다는 네 명의 극작가가 공유하는 인물, 사건, 플롯을 먼저 구상하고 하나의 드라마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긴장과 마찰에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Space

희곡에서 공간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 자체로 캐릭터가 되기도 하고, 때론 가쁘히 생략되며 인물들을 묶어놓거나 손쉽게 흩어놓기도 한다. 작가와 작품에 따라 공간이 정해지는 시점도 다르다. 어떤 이야기는 공간에서 출발하지만 어떤 이야기는 마지막에야 공간이 정해지거나, 심지어 텍스트가 일어설 때 비로소 공간이 생겨나기도 한다.

〈수영 전〉의 시작은 의외로 ‘수영장’이 아니었다. 각각의 인물을 한데 모아줄 수 있는 공통의 무언가를 찾고자 했다. 따로 있으면서 같이 있는 감각이 필요했다. 팔호가 진행했던 희곡 메일링 서비스 《계간 팔호》의 2021년 겨울호에서 작가들은 ‘신남아파트’라는 공통의 공간을 배경으로 릴레이 희곡을 쓴 경험이 있다. 규칙은 다음과 같았다.

- 규칙 1. 이야기의 공간은 공통 배경이 되는 신남아파트를 벗어나지 않는다.
- 규칙 2. 각각의 이야기는 독립된 이야기이며 개별 제목을 갖는다.
- 규칙 3. 그러나 반드시 앞 이야기의 등장인물 중 한 명이 다음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되어야 한다.

팔호는 〈신남아파트〉를 작업할 때, 가장 따로 있으면서도 함께 있는 감각을 느꼈다고 했다. 우리는 이 규칙을 **인물 이어받기**와 **공통 공간**이 결합된 형식이라 부르는데, 이야기의 소재는 제각각이어도 ‘전작과 이어지는 인물’과 ‘아무도 벗어나지 않는 공간’이라는 특성이 나름의 결속력을 만들어냈다. 다만, 당시에는 세 가지

규칙만으로 별다른 논의 없이 네 개의 이야기를 각 작가에게 맡겼으나, 이번에는 더 완성도 높은 작품을 위해 인물부터 주제까지 모두 함께 고민해보기로 했다. 그렇게 공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진희 저도 그때 레포츠펠터 얘기 했을 때 극적으로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게, 타인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정시간 머물러야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 안에 각양각색 남녀노소 다 모일 수 있고. 공유하는 물건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라커나 수건이나. 남의 물건이 나한테 올 수도 있고 내 물건이 남한테 갈 수도 있고. 원하지 않아도 타인과 계속 엮이게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소연 요즘에 그런 공간이 더더욱 많이 없어서 저부터도 그런 공간을 가는 것에 거부감이 들어요. 말을 섞어야 하는 상황은 있더라도, 몸을 같이 움직이고 땀 흘리는 공간이 생소하니까.

‘레포츠펠터’. 처음 정해진 공간이었다. 레포츠펠터는 타인과의 관계, 신체 감각, 혐오와 경계 등을 다룰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다가왔다. 팔호는 레포츠펠터 안에 여러 구역이 있다는 점을 활용해, 각자의 이야기가 진행될 공간을 정하기로 했다. 수영장, 배드민턴장, 로비, 헬스장 등 다양한 공간이 제시되었고, 각 공간에 어울리는 짧은 이야기들도 소개되었다. 그러나 같은 레포츠펠터 건물 안의 수영장과 로비, 로비와 헬스장, 헬스장과 배드민턴장의 거리가 신기할 만큼 너무 멀었다. 이야기가 분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간이 극적 상황을 위해 이용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공간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되돌아갔다.

팔호는 펼쳐진 공간의 재미있는 점들을 이야기했다. 각각의 공간이 가지고 있는 재미를 나누다보니, 모두가 공통적으로 **수영장의 특성**에 집중하게 되었다. 거대한 ‘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과 원하지 않아도 보아야하는 몸, 함께 수영을 배우는

사람들과의 거리감 등 다양한 부분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도은 제가 수영장 다니면서 재밌었던 건, 거기 다니는 사람들과의 거리 감각이 높낮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줌마들이 동기면, 호흡하는 것부터 함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없으면 찾게 되고. 반면에 엄청 싫어지는 사람은 '왜 저래?' 하며 특히 싫어하게 되고. 거리가 좁혀졌다가 멀어지는 그런 것들이 재미있었어요. 저는 수영장 관련해서 비밀에 꽃혔던 것 같은데, 무방비하게 노출되거나 감추고 싶은데 남들에게 보이게 되는 그런 감각들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결국 수영장이 이번 작품의 공간이자 무대로 정해졌다. 공간이 정해지자 떠올렸던 인물들을 필요한 만큼 수정해 배치하고, 주제에 맞는 플롯과 효과적인 공동 극작 방식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Characters

어느 도시의 구립 레포츠센터, 그 중에서도 수영장에 집중하게 되면서 **이야기의 대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각자의 이야기가 진행되더라도, 도달점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시작했다. 공간이 수영장으로 좁혀지기 전에 우리는 우선 각각의 레포츠센터의 어느 곳에 위치할 만한 인물들을 데려왔었다. 우선 큼지막한 키워드로 분류하자면 소연은 ‘배드민턴장(혹은 수영장)에 몰래 사는 여자’, 도은은 ‘음침한 로비 알바생 장수생 혹은 어떤 실패를 겪어 오래 사회생활을 안 한 인물(도둑질을 하는 사람)’, 효진은 ‘트랜스젠더 여성과 10대 비만 청소년’, 진희는 ‘헬스장에 모인 각 세대가 다른 세 명의 인물(20대, 30대, 50대)’을 구성했다. 하지만 인물만으로 이야기를 만들기엔 너무 중구난방이었다. 공간이 수영장이라는 구체성을 띄게 된 이상, 혈겁게 만든 인물들을 수영장에 맞게 재편성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민조

이런 방식이 결말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숨숨하거나 자극적인 결말, 극단적일 수 있거든요.

인물을 제한을 뒤서 이 희곡에 5명이 나온다고 상정하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강사, 어떤 사람은 트랜스젠더 회원이고, 어떤 사람은

도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얹히는 게 하루 안에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동시에 플롯에서 중요 포인트로 작동하는 ‘소문’도 함께 구성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플롯 부분에서 좀 더 설명하기로 한다. 이하는 괄호가 수영장을 배경으로 만들어온 인물의 시놉시스이다.

안숙영 (여, 40세) - 소연

수영장 지하 공실에 몰래 살고 있다. 수영장 가운데를 비추는 씨씨티비가 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간 적은 없다. 숙영의 지하 방(공실)은 수영장과 같은 높이이기 때문에 낮엔 물 소리를 들으며 방에서 수영 연습을 한다. 방은 여자 탈의실로 통해있다. 몹시 재빠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락거리거나 머무는 와중에 그들의 간식을 훔쳐 내려온다. 어릴 때 죽은 언니와 이 수영장에 다닌 적이 있다. 가족도 없고 돈도 없다. 이곳에 산 4년 동안 수영장 밖을 나간 적도 없다. 천장의 작은 틈으로 수영하는 사람들을 구경한다.

최인주(여, 63세) - 진희

디스크 수술 후 의사의 권유로 수영을 다니기 시작한 지도 이제 막 한 달이 지났다. 아직도 킁판 없이는 수영이 어렵지만 얼른 초급반을 벗어나 중급반에 있는 미정 언니와 같이 수업을 듣고 싶다. 강사도 친절하고, 수영을 배우는 것도 재미있지만, 인주를 제외한 초급반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친목을 다진 지 오래다. 그래도 이제는 한 달이 지났다고 인주가 오면 눈인사 정도는 해주는 듯 하다. 그러나 샤워실에서, 라커룸에서, 그리고 물 안에서 떠도는 그들의 수다를, 인주는 그저 들을 뿐이다. 요즘의 화젯거리는 '수영장 물을 개판으로 흐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이다.

김왕선(여, 34세) - 효진

반팔 래쉬가드형 수영복만 입는다. 분명 가슴은 나와있는데 목소리는 남자 같다. 나이는 30대 중반 정도, 이름을 물어보면 '김왕선'이라고 대답한다. 자신은 이미 충분히 중급반에 갈 수 있는 실력인데도 선생님이 자신을 미워해서 중급반으로 올려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과연 자유형, 평형, 배영...접영 빼고는 다 잘한다. 초급반의 임시 선생님 같은 존재. 자유형 발차기 시켜놓고 다른 레일을 돌보는 선생님을 대신해서

초급반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그것 때문에 선생님과 마찰이 잦다. 수영장에 들어오기 전에 몸에 물을 묻히는 모습을 몇 번 목격당했다.

박규은 (남, 20대 후반) - 도은

서글서글한 외모에 능글맞은 성격으로 가장 인기 많은 미혼의 수영 강사. 자신의 몸에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나르시스트 기질도 가지고 있다. 20대 중반까지 수의대 진학을 위해 오랜시간 수능 공부를 했지만, 전부 실패 후 바로 입대했다.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만 실은 열등감과 콤플렉스가 많다. 관리자도 없는 야밤에 몰래 수영장에서 알몸으로 수영하는 것, 공사 중이니 밟지 말라는 바닥을 굳이 밟고 지나가는 것, 평소 담배를 피우지도 않으면서 수영장에서 흡연을 하는 것. 금지된 일을 몰래 하는 일에 취미가 있다. 낮에는 회원들에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짓을,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인간.

이진선 (여, 19세) - 도은

중학교를 졸업하자 고등학교 입학 대신에 검정고시를 택했다. 3개월 전, 단기간에 40kg가량 감량에 성공했다. 평생을 고도비만으로 살아왔지만 다이어트에 성공 후, 바뀐 자신의 외모에 만족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시했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납작해진 배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탄력을 잃고 늘어졌다. 발목부터 엉덩이까지 튼살 자국이 심해 평소에는 절대로 반바지를 입지 않는다. 최근 시작한 버츄얼 유튜브 일에 재미를 붙였다. 부족한 방송 장비를 어디서 구해야 하나 고민하는 와중에 언니가 자유형까지만 배우면 장비를 사주겠다는 제안을 한다.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간 수영에서 자신을 은근히 배척하는 고인물 회원들과 만나고, 그들을 혼내주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후에 말하게 될 플롯을 정하는 과정에서 **인물을 재편성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진희와 소연은 애초 구성한 인물들에 상세한 설정을 붙이는 쪽으로

진행했지만, 효진과 도은은 수영장으로 정해지기 이전에 구상했던 인물들과 이후에 구상한 인물들이 합쳐지는 과정을 겪으며 새로운 인물들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해서 효진에게서는 혼란을 겪고 있는 10대 청소년의 부분이 강조되며 ‘최이지’라는 인물이 탄생했고, 도은에게서는 기존의 ‘음침한 로비 알바생’이라는 부분이 강조되며 ‘고윤희’라는 인물이 탄생했다. 이 인물들의 조화를 판단하기 위하여 각자 자신의 인물과 다른 극작가들의 인물을 만나는 2인극 파트(시놉시스)를 써보았다.

[예시: 도은 작성] 윤희와 인주

초보반 수업 중, 넘어져 다친 인주를 사무실에서 치료해 주는 윤희. 그러나 그녀는 인주에게 센터 회원들의 sns를 염탐하던 것을 들키고 만다. 곧 찢리겠구나 싶는데 인주는 그날 이후로 오히려 윤희에게 살갑게 다가오고, 윤희는 그런 인주가 불편하기만 하다. 윤희는 애써 외면하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만드는 인주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이 불편하다. 윤희는 초보반 강사와 수강생들에게 인주가 물 안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목격했다는 헛소문을 퍼트린다.

이렇듯 시뮬레이션을 통해 플롯을 강화하고 각자의 인물과 자신의 인물이 만났을 때의 구체성을 세부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며 플롯의 구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Plot

희곡의 공간과 인물을 구체화하고 나니, 이제 그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이 다섯 명의 인물들이 어떤 ‘사건’에 어떤 ‘이유’로 서로 얽히게 될까. 수영장이라는 공간에서 더 나아가 인물들에게 부여할 공통의 ‘무언가’가 더 필요했다. 불특정 다수가 공유하는 공간에서 불확실하게 떠도는 말들. 우리는 이야기를 어떤 **소문**으로부터 시작해보기로 했다.

3개월 전부터 샤워를 하지 않고 수영장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곳곳이 씻지 않고 수영장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한 달 전, 누군가에게 탈의실에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을 정도로 두들겨 맞았다.

그렇게 이 ‘소문’이 인물들의 대화를 타고 점차 스노우 볼링 되어 수영장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킨다는 커다란 밑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왜 샤워를 하지 않고 들어왔을까?”라는 질문에는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는 의도적으로 진실을 비워두기로 했다. 인물들이 각자의 기준으로 소문을 믿고 해석하게 두면 자연스럽게 자격이나 위생, 그리고 규칙에 대해 반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우리가 주제로 잡은 **경계나 혐오**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된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도은 소문의 흐름을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결국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지.

그게 인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 지도.

효진

더 나아가서, 지금 이들이 처한 '사태'가 필요할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샤워실이 폐쇄되었다든지,

수영장의 레일이 사라졌다든지.

따라서 우리는 공통의 사건을 만들기보다는, 소문이 어떤 형태로 진화하며 그것이 수영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지를 좀 더 구상하기로 했다. 관건은 마지막에 결국 수영장이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게 될까를 상상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합의한, 소문의 기승전결은 아래와 같다.

1. 안 씻고 수영장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누군가 그 사람을 때렸다는 소문이 돈다.
2. 이 일에 대해 누군가 앙심을 품고 있다는 소문이 돈다.
3. 누군가 수영장 물에 무언가를 풀었다는 소문이 돈다.
4. 수영장이 문을 닫게 된다는 소문이 돈다.

소문의 형태를 이렇게 상정해두고, 극작 방식에 있어서 여러 차례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처음엔 하루라는 이야기 시간을 설정해놓고 하루 동안 시간대별로 일어나는 일들을 릴레이로 쓰기로 했다. 네 작가가 각 파트를 한 차례씩 돌아 열 페이지 넘는 초반부가 완성되었을 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기보다는 **각 인물에 대한 소개들이 병렬**되어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 오고 갔다. 또 하루라는 이야기 시간이 외려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제한을 주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음 시도는 보다 작가 개개인에게 자유도를 줄 수 있도록 **옴니버스**로 진행하되 희곡 전체의 연결성을 위해 앞 사람의 등장인물을 한 명 이상 이어받자는 규칙을 세웠다. 또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지켜보게 되는 관찰자 포지션을 넣자는 의견을 수렴해 강사로 설정되어 있었던 규온을 라이프 가드로 바꾸어 관찰자 포지션으로 세우게 되었다. 그렇게 릴레이 옴니버스를 시작해 1번 진회는

인주+새로운 인물+규온, 2번 도은은 윤희+새로운 인물+인주+규온, 3번 소연은 숙영+윤희+규온, 4번 효진은 이지+숙영+규온으로 희곡을 완성해왔다.

낭독회를 2주 앞둔 시점에 다시 모였을 때, 각각의 이야기를 보다 더 긴밀하게 연결하고 공통의 인물들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이야기를 5명의 인물로만 진행해보는 게 어떨것냐는 의견이 있었다. 그렇게 모든 장면에서 등장하는 규온을 제외한 4명의 인물들이 로테이션하듯이 본인의 에피소드와 이어받는 다음 사람의 에피소드에 총 두 번씩 등장하게 되는 규칙이 세워졌다.

또 각 에피소드별로 주제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각자가 ‘경계’라는 키워드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 쓰고 싶은지 공유하는 시간 또한 가졌다.

인주는 무리에 속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경계로부터 떠밀린 사람이다. (진희)
 윤희는 끊임없이 경계와 자격을 재생산하는 사람이다. (도은)
 안과 밖이 있다면 숙영은 안을 보는 사람이다. (소연)
 이지는 아이도 어른도 아닌, 보호 받지 못하는 존재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 (효진)

인물들 간의 비슷한 점과 또 다른 점들을 찾아가며 최종고는 **인물 로테이션 받아 옴니버스로 쓰기**의 형식으로 결정되었다. 에피소드 사이사이 소문이 점차 변화하고, 마지막 장면은 결국 문을 닫게 된 수영장의 물을 빼고 있는 규온의 모습으로 막을 짓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우리는 우여곡절 끝에 내부낭독회를 위한 최종고를 완성시킬 수 있었다.

Staging

5개월에 걸쳐 <수영 전>의 초고 집필을 마친 괄호는, 다음 동작에 앞서 숨 고르기를 하듯 지난한 '쓰기'의 과정을 '읽기'의 시간을 통해 갈무리하고자 하였다. 단순히 눈으로 읽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전달받는 것보다는 배우를 만나 육성으로 발화하고, 함께 모여 듣고 이야기를 나누며 작품에 담긴 시도와 실패에 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괄호는 24년 8월 17일, 송파구의 공간나인에서 내부 낭독회를 진행했다. 낭독배우 5인(백혜경, 조어진, 윤현길, 이영주, 이주협)과 전문 관객 3인(우지안, 김은정, 황정은)을 섭외하였으며, 연출, 기획, 극작가로 구성된 전문관객들에게는 낭독회 이후 초고에 대한 서면 리뷰를 전달받았다. 간단히 인사를 나누는 후, 배우들은 공유받은



<수영 전> 내부 낭독회 사진

초고를 낭독하였다. 본격적인 대화에 들어가기에 앞서 괄호는 앞선 장에 등장한 인물을 다음 장의 작가가 넘겨받는 방식으로 진행한 <수영 전>의 공동극작 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이후, 작품에 대한 다양한 감상 및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황정은 챗터마다 다른 작가가 썼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인물을 이어받아 쓰면서 아주 긴밀한 연결에서 탈피해, 작가가 자유의 영역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보여서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과 무대'도 공동창작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군상들의 모습이 펼쳐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지점이 '수영장'의 여러 얼굴들이라는 작품의 극작 방식, 형식의 결과가 작품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현길 저는 처음엔 한 작가님이 쓴 줄 알았어요. 각각의 장마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는데, 쪽 연결해서 긴 호흡을 가져가고 싶었나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장마다 힘을 계속 주는 반복들이, 익숙한 느낌이 들어 조금 아쉽다고 할까요? 다르게 된다고보다는 반복되는 느낌이 오히려 신선함이 떨어지는 것 같아 아쉬웠어요.

작품의 첫 인상, 공동극작 형식과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감상을 시작으로, 〈수영 전〉이라는 제목에도 알 수 있듯이 **수영장이라는 공간성과 몸**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특히 타인의 몸과 나의 몸을 응시할 수밖에 없는 수영장만이 지닌 공간성에 대한 다양한 대화가 이어졌다.

우지안 '다 쓰는 물'이라는 말에서 침입하고 엮이고 더러운 물.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물. 체액이 섞이는 비천한 물성 같은 걸 강조하고 싶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 랜덤하게 같은 공간을 이용하다는 이유만으로 엮이거나 상처를 주고받거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을 꺼내 보여주거나, 각각의 고유성과 더러움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생각했어요. 그에 반해 각 인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욕망하는 게 뭔지 뾰족하지 않았어요. 간단히 말하면 충분히 더럽지 않다고 느꼈어요.

조어진 희곡에는 사실 수영장에서 몸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유나 사연이 있어서 수영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누군가와 접촉하는 것에 극도로 예민한 지점들처럼요. 몸이라는 것은 결국 감각인데 작품은 감각보다 말이 좀 많았어요. 누군가 씻지 않아서 맞았다는 소문이 크게 다가오고, 몹시 궁금한데 가볍게 대화로만 나오고 지나가서 아쉬웠어요.

김은정

공간이 주는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몸을 보여준다는 게 나의 껍질을 벗겨서 나를 드러낸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들이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본인을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지점이 사회와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외에도 수영장이 지닌 물성의 감각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수영장에 떠도는 소문이 인물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극 안에서 서로 어떻게 엮일 것인가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낭독회는 '괄호'에게 초고 완성 후, 느꼈던 아쉬움을 관객 및 창작자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고 고민할 질문들을 다시금 던져주었다.

몸과 혐오, 경계라는 키워드 아래에서 〈수영 전〉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누군가의 시선을 담아낼지 무척 기대되는 시간이었다.

[부록: 공동극작 희곡 샘플 1]

수영 전, 반드시 샤워를 하고 들어오세요

극작가 동인 괄호

등장인물

김인주(59세)

고윤희(26세)

안숙영(41세)

최이지(14세)

박규은(23세)

시간

현재, 여름.

무대

해성구에 위치한 '해성아우름체육센터'.

수영장.

1.

수영장 안.

안내 음성이 들려온다.

“수영 전, 반드시 샤워를 하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음성은 그 뒤로도 몇 번 더, 반복적으로 들린다.

규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하고 있다.

곧이어 들려오는 인주의 목소리.

인주 나 왔어요 - 가드 총각!

인주, 규은의 앞으로 와 수경을 내려쓴다.

규은은 여전히 핸드폰 삼매경이다.

규은 (슬쩍 눈인사) 예. 오셨어요.

인주 젊은 사람 아니랄까봐 백날 핸드폰 보고 있네.

 그거 그렇게 보고 있음 밥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규은 요즘은 잘만 하면 둘 다 나와요.

인주 우리 딸이랑 하는 소리가 똑같네.

 가드 총각. 밥은 먹었어요?

규은 그렇리가요.

인주 가만 있어 봐, 저기, 약밥 싸 왔는데.

규은 아닙니다 - 괜찮습다 흰님 -

인주 아님 말구.

인주, 규은의 옆에서 혼자 준비운동을 하기 시작한다.

동작 크게 크게, 열심히.

규은 근데 왜 매일, 이렇게 일찍 오시는 거예요?
인주 그냥. 사람들 진도 쫓아가려고 -
 미리 와서 물장구나 치려고 오는 거지.
규은 회원님 이제 막 겨우 물에 뜨시잖아요.
인주 그래도 나, 엇그제부터는 발차기 배웠잖어.
규은 그러니까요.
인주 키판 잡고 가기는 간단구. 벌써 3주 만에. 대단하죠?
규은 3주씩이나~ 걸려서요.
인주 젊은 사람하고 내가 같어~?!
규은 급하게 배우려다가 무리하지 마시고요.
 디스크 때문에 재활하시려고 수영 배우신다면서요.
인주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가 말해줬나?
규은 아뇨.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몇 번이나.
인주 글썄 헛갈려. 워낙 여기저기 말하고 다녀서.
규은 예.
인주 중급반에 나랑 친한 언니도 있다고, 그것도 말했나?
규은 (익숙하다) 미정 언니요.
인주 그래, 그 미정 언니 소개로 내가 여기 등록한 거라니까.
 그 언니는 여기 다닌 지 꽤 됐는데 -
규은 수영 실력이 좀처럼 안 늘어서 고급반으로 못 올라가고 있다고
 요.
인주 그것도 그렇고, 그 언니가 중급반 사람들이랑 워낙 친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드 총각. 난 언제쯤 중급반 갈라나?
규은 아무리 빨라도 6개월은 초급반에 계셔야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안내 음성이 들려온다.
 "수영 전, 반드시 샤워를 하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저거 계속 방송하대.

규은 일부 회원님들이 좀 강조해달라고 계속 민원을 넣으셔서요.
인주 아이구.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샤워를 안 하고 들어간다고.
 (궁시렁) 코비드인지 뭔지도 지나갔는데.
 어련히~ 알아서들 하는 거지.

규은 그 어련히~가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시대요.
인주 그래서 그런가.

규은, 그제야 인주를 본다.

인주 아니 - 사람들이, 남 씻는데 말들이 많아.
 샤워실에서 막 똑바로 씻어라, 어째라, 저째라 말싸움도 하고.

규은 어떤 회원님이 그러시는데요?
인주 대개들이 다 그렇더라고. 아이구, 왜들 그러는지 몰라.
 (이죽거리는) 자기들이나 잘할 것이지.

규은 회원님 이해하세요.
 뭐... 서로 깨끗이 샤워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인주 알지, 그럼.

인주, 준비운동을 마치고 그 자리에 서서

인주 근데 그게 진짜예요?

규은 뭐가요?

인주 샤워실에서 누가 맞았다는 거.
 저기 뭐야, 안 씻고 그냥 들어가려다가 누가 그 사람을 때렸다
 던데.

규은 ?

인주 수영장에 소문 다 났어요 -
 나도 오늘 옷 갈아입으면서 할머니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규은 그거 그냥 소문이에요, 회원님.

인주 굴뚝에서 연기가 그냥 나나.

그래서 다들 그렇게 남 씻는 거에 예민들 하구나. 그치?

규은 그건 그냥, 일부 회원님들께서 그러시는 거고요.

[부록: 공동극작 희곡 샘플 2]

인주, 낮게 웃음을 터트린다.
 윤희, 인주가 왜 웃는지 모르겠는 눈치. 그러나 왠지
 기분 나쁘다.

윤희 제가 나이 많은 게... 웃기세요?
인주 (손사래) 아휴, 아니. 우리 딸 생각나서 그래요.
 우리 집 막내 개도 맨날 말끝마다 하는 말이 그거거든.
 '엄마, 내 나이가 몇 인지 알아?' 지도 머리가 좀 굵었다, 이거
 지.

윤희
인주 참, 우리 딸애가 먼젓번에 알려줬는데 밖에 나가서 아무한테나
 '아가씨', '학생' 하지 말라대요? 요샌 그게 예의 없는 거라구.
 식당에서 밥 먹다가 우리 남편이 '아가씨' 부르니까 그러지 좀
 말라고. 창피하다고 아주 한 소리 들었네.

윤희
인주 근데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입에 붙은 말 바꾸기가 쉽
 나. 나도 모르게 먼저 튀어나와 버리지. 하여튼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요. (웃으며) 우리 딸한테 또 한 소리 듣게 생겼네.

윤희 따님이랑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인주 안 좋을 게 뭐 있나? 엄마랑 딸인데.

잠시 말이 없는 윤희, 생각에 잠긴 얼굴.
 인주, 윤희를 바라보다가

윤희 (동시에) 박마리씨가 다친 줄 알았어요.
인주 (동시에) 본다이 비치라고 들어봤어요?

윤희와 인주, 둘 다 상대방의 말을 단번에 이해 못
 하는데

인주 (좀 더 빠르게) 박마리...?
윤희 아, 수영복 초록색이래서. 초급반에 있잖아요.
 유명한 아줌마. 자이 2단지 살고.
 아닌 척하면서 맨날 맘카페에 자기 남편 세탁소 후기 쓰고.
 딱 봐도 짝인 허접한 목걸이 없어졌다고 난리 쳤던 아줌마.
 알고 보니 자기 차에 흘렸던 거면서.

인주 서로 좀 아는 사이?
윤희 (약간 당황) 안다기보단... 그냥, 사람이 좀 튀잖아요.
 자기가 튀고 싶어서 그러는 건진 몰라도.

인주 (가웃) 그랬나?
윤희 안 끼는 데가 없어요. 무슨 일만 났다 하면 쪼르르 달려가서.
 자기 일도 아니면서 떠들어대기 바쁘고.
 분명 뭘 사달 나면 그 아줌마 때문일걸요.

인주 막 나쁜 사람 같진 않던데.
윤희 원래 막 나쁜 사람보다 더 악질인 게 적당히 나쁜 사람들이에
 요.
 소문 아시죠? 맞은 일 때문에 여기 회원이 단단히 버리고 있대
 요.

인주 뭐를?
윤희 뻘하잖아요, 복수.
인주 ... 복수?
윤희 억울하겠죠. 화났을 수도 있고.
인주 아니, 복수를 한대요? 누가? 누구한테?
윤희 그거야 당연히... 저도 모르죠.
인주 (김빠지는) 암만 그래도 동네 수영장에서 복수...같은 걸 하나?
 오며 가며 얼굴 본 사이일 텐데. 남도 아니고.

윤희 풀장 안에 있으면 다 비슷해 보이는데요, 뭘.
 수경 쓰고 수모 쓰고. 다 똑같이 움직이는데 거기서 무슨 짓을
 할 줄 어떻게 알아요.

인주 아이고, 너무 갔다.
윤희 전요, 남들이 안 본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얼마나 추해지는지

알거든요.

인주, 잠시 말없이 윤희를 바라본다.

윤희 물속에 있을 땐 모르겠지만, 밖에선 뻘히 다 보여요.
보고 싶지 않아도 전부. 사람들 걸으론 깨끗한 척, 평범한 척
하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웃겨요. 다 티 나는데.

인주 ... 아가씨, 수영할 줄 알아?

윤희 안 하는데요.

인주 배워보면 좋을 텐데. 밖에서 보기만 하지말구.

윤희 옛날엔 가끔 했는데... 이젠 뭐 굳이. 염소 냄새도 싫고.
그냥 보는 게 더 나아요.

인주 (윤희 손을 대뜸 잡으며) 내가 딱 그랬는데!

윤희 (불편하다) 네?

인주 작년에 우리 딸이 사는 호주엘 갔다 왔는데, 거기에, 그 뭐더라.
바다랑 수영장이 합쳐져있구. 풀 아래로 파도가 막 치는데, 금방이라도 넘어올 것처럼 넘실거려서. 거기가 뭐였더라. 무슨 비친데.

윤희 (슬쩍 손 빼며) 본다이 비치요?

인주 어어! 맞다. 어떻게 알아요? 가봤나?

윤희 아까 말씀하셨어요.

인주 아휴, 그랬구나. 암튼 거길 갔는데 너무 무섭더라구.
니들만 가서 놀아라, 난 그냥 여기 있을란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한창 인주의 말이 이어지려는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규은.
손에는 약국 봉투가 들려있다.

규은 파스 사 왔어요!
인주 아이고, 땀 좀 봐. 괜히 가득 총각만 고생시켰다, 내가.

규은 (윤희 흘끗) 같이 계셨어요?
인주 (웃으며) 수다 좀 떨자 그랬지.
규은 누나랑요?
인주 정말이네. (윤희 보고 웃으며) 보기보다 나이 많은가보다.
윤희 (어색하게 웃으며) 네, 카운터 오래 비우면 안 돼서.

윤희, 슬그머니 사무실을 나서는데

인주 아가씨! 나도 보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수영해 보니까 다르더라구! 한 번 배워봐요!
보기만 말고!

[부록: 공동극작 희곡 샘플 3]

숙영 여기예요...

윤희, 라커 아래에서 숙희의 목소리가 나오는 틈을
 찾았다.
 엿드려서 보려는데, 숙희가 비명을 지른다.

숙영 아아악!
윤희 으아아악!
숙영 짹짹. 죄송이야! (짧은 사이) 죄송해요. 짹짹이야. (짧은 사
 이) 죄송... (아무래도 안 되겠는) 안 보면 안 돼요? 부탁합니
 다.

사이.
 윤희, 힘없이 앉는다.

숙영 제 팬티예요. 신고하지 마세요.
윤희 ...뭘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숙영 그게... 말하자면 길고...
윤희 '회원'이라고요?
숙영 회원이었죠. 94년에...

사이.

윤희 수영장 물에 약 타러 온 거예요?
숙영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윤희 그럼 누군데요.
숙영 이 안에 사는 사람....

사이.

윤희 평소에 막 돌아다녀요?
숙영 네.
윤희 낮에도?
숙영 네....
윤희 거기 계신 지 오래 됐구요?
숙영 어떻게... 네....
윤희 신고합니다.
숙영 자암간-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사이.
 윤희, 핸드폰 드는데,

숙영 핑계잖아요!

사이.

숙영 약 탄 사람 찾으러 온 거.
윤희 ...맞거든요? 흔적이라도 찾아보라고 해서,
숙영 오늘 인터넷 기록 지우는 걸 깜박 한 거죠?

윤희, 눈을 질끈 감는다.

숙영 회원들 정보 보고, SNS 엿탐하고, 출신 학교 갤러리 보고, 회
 사 직함 보고, 애인 보고, 자식 보고 타고 타고 또 타서 이상
 한 것까지 다 보고...

윤희 이상한 건 안 봐요!

사이.

숙영 나 폐 안 끼쳐요. 절대로.
윤희 폐를 안 끼친다고요? 거기서 사람 훑쳐봐놓고!

사이.

윤희 난 훔쳐본 게 아니라... (한숨) SNS는 보라고 만든 거잖아요!
내가 뭘 보든 말든...

사이.

숙영 조용히 있을게요. 아무한테도 들킨 적 없어요. 4년 간.
윤희 4년...
숙영 그 쪽만 조용히 해주면. 나도 비밀로 할게요.
윤희 비밀로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밖에 나오지도 못 하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숙영, 녹음기를 재생한다.
흘러나오는 저음질의 윤희 목소리.
'난 훔쳐본 게 아니라, SNS는 보라고 만든 거잖아요!'

윤희 ...알겠어요. 솔직히 내가 그 쪽처럼, 그런 기생충 같은 사람이라
랑 왜 거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숙영 기생충이라니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윤희 그게 아니라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사이) 하여튼! 전 오픈 시간
전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도 말해요.
숙영 이름은 왜요?
윤희 그 쪽한테 너무 유리하잖아요. 난 그 쪽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는데.
숙영 ...안숙영이에요. 고마워요.

윤희, 몸을 일으킨다.
숙영, 안심하고 종이에 뒀가를 쓴다.

숙영 아, 그리고요. 손에 들고 있는 거 바퀴벌레 약이에요. 3년 전에
 둔.

 윤희,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통을 본다.

 약한 헛구역질.

 윤희,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간다.

 숙영, 종이에 쓴 걸 틈으로 빼꼼 내민다.

 두리번거리는데 윤희가 없다.

 다시 가져온다.

 자신의 지하실 벽면에 붙여둔다.

‘비밀을 지키기로 하였음

안: 싸인 (숙영의 싸인이 되어있다)

밖: 싸인’

 그리고 여전히 구석에 놓여 있는 숙영의 트렁크 팬
 티.

 숙영, 시계를 본다. 잠을 잘 시간이다.

 좁은 지하실에서 익숙한 포즈로 안대 대신 까맣게
 칠한 수경을 끼고 잠이 든다.

[부록: 공동극작 희곡 샘플 4]

이지 어디로 가죠?
 어디에 있어야 돼요?

숙영 ...몰라요.

이지 어른이 모르면 난 어디다 물어봐요?

숙영 ...달아도 나 있는 덴 안 없어져요. 물만 없어지겠지, 어쩌면,
 그 스쿼시장 같은 게 생길지도 모르고...

이지 저도 수영장 밑에 살고 싶어요.

사이.

숙영 안 돼요. ...미안해요, 나도 이런 처지라서 누구 도와줄/
이지 /강이나 계곡에 숨어 살 순 없잖아요.
 거긴 어른들이 싼 똥오줌이 가득하니까.
 바다도 안 되거든요.
 난 민물고기라서.

숙영 민물고기?

침묵이 지나간다.

이지 나도 발견되지 않는 곳에서 몰래 지내고 싶어요.
 물 밑에 엎드려 살다가 밤만 되면 나와서 헤엄치고 싶어요.
 진흙 물고기처럼.

사이.

숙영 ...안 돼요. (다시) ...안 돼요.

숙영은 열심히 말을 고르다가

숙영 도움이 필요하거든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어리고 젊고 약하니까,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 많을 거예요.
다른...뭐 국가 기관 이런 데.
(망설이다)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미안해요.

이지 아줌마는 다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지는 그냥 물에서 숙영을 바라보고 있다.

이지 나 힘들다고 남까지 힘들게 하지 말라 이거죠?

숙영 (당황해서) 꼭 그런 말은 아니지만...

이지 어른들은 다 똑같은 말만 하는구나.

숙영 그게/

이지 /물에는 아무리 빠졌다 나와도 바뀌는 게 없고.

더는 내 몸을 담갔다 뺄 물도 없고.

사이.

이지 알겠어요. 어른도 애도 다 똑같이 힘들다. 구원은 셀프.

이지는 다시 반대편으로 헤엄쳐 가서

물 위로 튀어오르듯 쑥 몸을 빼낸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도자기 단지를 꺼낸다.

숙영 (고심하다가) 그렇지만 내가 지내는 곳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도저히 돌이켜 지낼 수가 없고, 그리고 나는 정말로 그럴 여력
이 안 돼요. 정말로... (하다가 보고) 뭐예요? (아니,) 뭐해요?

이지 (무시하고) 좀 다들 거라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수영하는 모습을 아줌마는 아주 오래 지켜봤을 테니까.

내가 아줌마를 요정이라고 생각했다가 괴물이라고 생각했다가

다시 인간으로 만드는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아줌마는

맨날 위를 쳐다보면서 내 팔다리가 자라나는 걸 봤을 테니까.

그건 어쩌면 우리 엄마 아빠보다도 매일매일 봐준 거니까,
 그래서 혹시나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괜찮아요. 인생은 그런 거니까.
 아줌마가 나만 봤겠어요? 다양각색의 수영복들. 오리발들.
 존나 많이 봤겠죠. 어쩌면 헤엄치는 귀신도 봤을지 몰라.
 나는 그 중에 하나일 거고...
 (조금 웃는다) 말 걸기 전엔 생각 못했어요.
 죄송해요 생각이 짧아서.
 저 애잖아요. 선생님들한테도 맨날 혼나요.
 생각 안 하고 행동한다고.
 ...저기.
 괜찮으니까 가세요.
 진짜로 괜찮아요.

숙영
 이지

사이.
 숙영은 충분히 망설인다.

숙영

미안해요.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요.

더 머뭇거리다가

숙영
 이지
 숙영

그리고 저-
 말 안 해요. 아줌마가 그 밑에 살고 있다는 거.
 그거 유골함이에요?

사이.
 이지는 숙영의 말을 꼭꼭 씹어 무시한다.
 숙영, 무어라 더 말을 하려다가,
 머뭇거리다가, 도망치듯 자리를 뜬다.

이지는 안고 있는 도자기 단지를 열어본다.
 잠시 그 단지 안으로 얼굴을 맞추고 밀어 넣을 듯이

-
가만히 안을 들여다본다.

그러다가 이지는 유골함을 들고 일어난다.
한참.

이지 수영 잘 해. 이제 이 물 다 할머니 거야.

이지가 유골함에 담긴 젓가루를 물에 쏟아버린다.
더 이상 아무런 가루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유골함을 탈탈 털어낸다. 이지, 서서 잠시 본다.

이지 나는 이제 할머니 생각 안 할 거야.
 나는 이제 자유로워질 거야.

그리고 유골함의 뚜껑을 닫고 가방에 다시 넣는다.
잠시 떠다니는 젓가루를 보다가,

이지 빠이.

이지는 나간다.